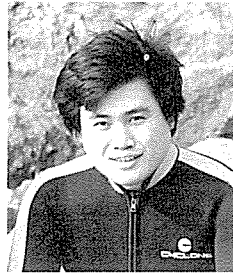


## 나의 작은 창



옥 정 현

(서울대대학원 생물학과 박사과정)

최근들어 컴퓨터사용자들에게 그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오는 낱말이 '창(window)'이다. 한 곳에 있으면서 다른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은 동시에 나를 돌아다 볼 수 있는 거울이 되기도 한다. '창'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들은 것은 대학원에 입학한 후 참석했던 실험실 모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생님께서서는 당신의 학창시절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유학시절 겪은 '언어'와는 다른 '생활속의 말'로 인한 에피소드를 들려 주셨다. '하나의 언어'를 아는 것은 그 사회의 문화를 볼 수 있는 '창'을 갖는 것과 같다는 말씀과 함께, 이후 나는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하는 여러 개의 '창'들을 갖게 되었다.

내가 속한 관악산 자락의 연구실에서는 해조류를 대상으로 분류학적 연구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분류학이라면 형태분류학만을 떠올리지만, 현대분류학은 생물학 전반을 종합하는 위치에 있다. 생물학에 새로운 분야가 제시될 때마다, 이는 항상 분류학에 또 하나의 정보제공 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우리 연구실에서도 형태분류학적 접근과 함께 실내배양을 통한 조류의 성(性)분화와 성분분류학적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어떤 방향의 접근이든지 자연의 재료를 필요로 한다.

나의 첫번째 '창만들기'는 실험재료의 채집을 위한 스쿠버다이빙(SCUBA diving) 교육이었다. 바닷가가 고향이어서 물속을 들여다 볼 기회는 가끔 있었지만, 해조류에 대해 알고난 후 들여다보는 물속은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

리라"는 어느 베스트셀러의 문구 그대로였다. 대학원 입학 후 올름도를 1년 동안 계절마다 채집을 갈 기회가 있었다. 동해 먼 바다의 섬을 찾아가느라 배멀미도 했지만, 갈 때마다 '나만의 작은 창' 너머로 자그마한 '나라 사랑'마저도 느끼곤 했었다.

나는 석사과정에서 '빗살잎(Hypoglossum)'이라는 홍조류를 대상으로 형태분류학적 연구를 하

였고 박사과정에서 '모자반(Sargassum)'이라는 대형갈조류를 재료로 연구하고 있다. 박사과정에서는 형태분류학적 접근 뿐만 아니라, 수리분류학이나 분자계통학적 접근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론을 도입한 연구를 할 계획이다.

현재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들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여름방학부터 시작된 이 새로운 '창 만들기'는 예상보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었지만 조금씩 결과를 얻으면서 전과 다른 것까지 볼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변해야 산다'는 슬로건은 '세계화'와 더불어 최근들어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의 하나이다. 대학캠퍼스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들어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교수님들로부터 학생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변화의 주역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 모든 것이 편해졌을 때는 다른 일을 찾아야 할 때라는 얘기가 있다. 그것이 '나만의 창'을 '치는 별들'로 수놓는 많은 나날들 속에서도 새로운 '창만들기'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67